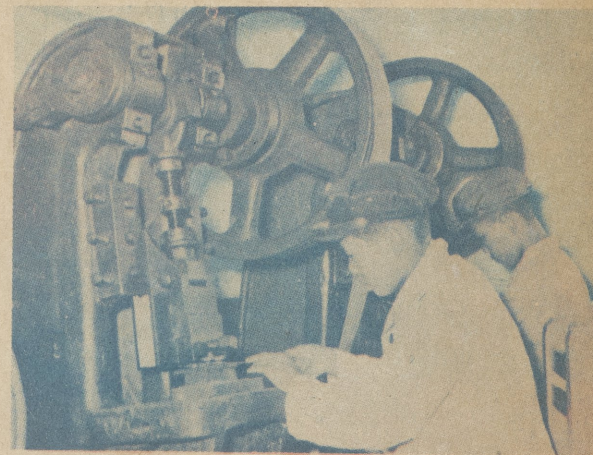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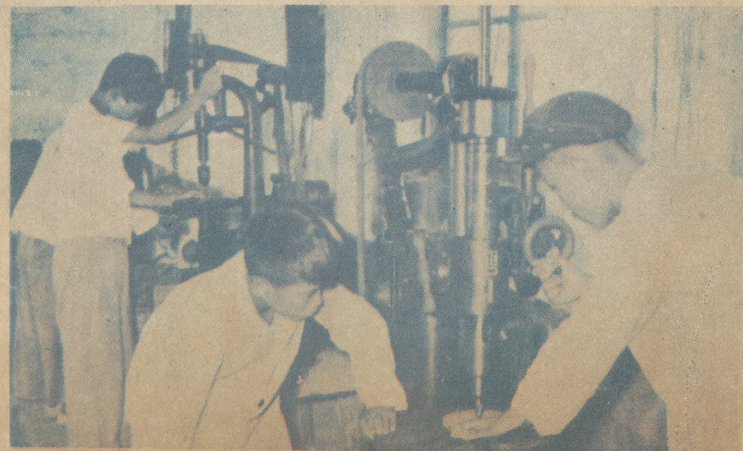
1960.9

앞날의 기술자로!

평양시 룡성 중학교 철공 기계 크루쇼크원들은 전류계, 변압기, 보강철, 팽이, 호미, 실험용 기구 등 여러가지를 만들고 있다. 크루쇼크원들은 생각하고 만들어보고 뜯어보기도 하면서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져 앞날의 훌륭한 기술자로 준비 하고 있다.

↑ 크루쇼크원들은 항상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새 기술을 배운다.

↑ 크루쇼크원들은 기술을 배우고싶어 찾아온 동무들을 항상 친절히 가르쳐 준다.

↑ 크루쇼크원들은 크란크프레스란 기계로 멋있는 못을 만들고 있다.

← 이들은 크루쇼크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동무들이지만 크루쇼크원들이 친절히 가르쳐서 볼반을 훌륭히 다룬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9호 내용

빛나는 승리, 휘황한 앞길

공업총생산액
2.5배 이상

우리는 번영하는 조국에서 무한히 늘어가는 행복과 기쁨의 자랑속에서 8.15 해방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날을 맞으며 지난 8월 14일 평양대극장에서는 성대한 경축대회가 열리였습니다.

대회에서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는 우리 인민이 걸어온 지난 15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길을 총화하고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길을 밝혀 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에서 15년이란 아주 짧은 시일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동안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수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하시였습니다.

실로 지난날 우리 인민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 남보다 뒤떨어져서 남에게 억눌리고 짓밟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은 제나라 제땅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현대적 기계들을 제손으로 척척 만들어 내쓰며 도시와 농촌 그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흥겹게 일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자식을 공부시킬 것, 그 어느 것 하나 근심 걱정할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지금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에게는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한 가지 근심 뿐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는 이 한 가지 근심도 없어지고 삼천만 인민이 다 같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좋으며 우리 당의 정책이 옳고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면서 앞으로 1961년—1967년 기간에 실시될 7개년 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내 놓으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7개년 계획 기간에도 계속 꾸준히 중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라의 공업화를 빠르게 하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7개년 계획의 첫 3년동안에는 이미 이룩해 놓은 중공업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이것을 잘 움직여 경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어지 4년 동안에는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들과 새로운 발전소, 탄광, 광산을 더 많이 늘쿠고 기술 장비도 개선하면서 이와 함께 경공업, 수산업, 농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끌어 올리게 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앞으로 2~3년 내로 우리 나라에서 3억 메터의 옷감을 짜 낼 것이며 농촌에서는 해마다 400만 톤 이상의 알곡과 30만 톤의 고기를 생산하며 20만 마리의 암소에서 젖을 짜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생산이 늘어 나면 몇해 안 가서 농민들에게서 받는 농업 현물세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서 받는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7년에 가면 이 한해 동안에 만도 1954년부터 1959년까지의 6년 동안에 생산한 것과 비슷한 량의 공업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에 가면 우리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에 170억 킬로와트시의 전기, 2,300만 톤 이상의 석탄, 250만 톤의 강철, 430만 톤의 세멘트, 150만 톤의 화학 비료, 5억 메터의 천, 140만 톤의 물고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알곡 생산은 1.5배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산을 발전시키자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더욱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기계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미 우리 당은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를 열고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이르키며 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키워 낼 방도를 내 세웠습니다.

이처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앞길은 휘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형편은 이와는 딴판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견디다 못해 금년 봄 드디여 일어나 싸워 리 승만을 몰아 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자유와 해방, 새생활, 새 정치가 차례지지 못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오늘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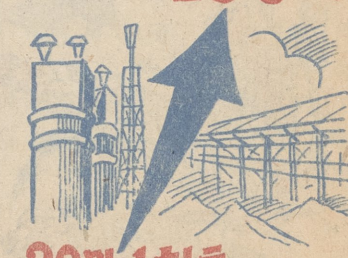
7개년 계획의 웅대한 전망

강철 250만톤
45만 1천톤 1959년

전력 170억 키로와트시
78억 1천 1백만 키로와트시 1959년

석탄 2,300만톤이상
885만 4천톤 1959년

쎄멘트 430만톤
192만 6천톤 1959

직물 5억메터
1억 5천 8백만메터 1959년

화학비료 150만톤
39만 1천톤 1959년

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고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 속에서 건져 내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미국 군대를 남조선에서 물러 가게 하고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반드시 어떠한 외국 군대의 간섭도 없이 조선 사람끼리 민주주의적인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에게 이를 위해 나설 것을 다시금 호소하셨습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바 두려워서 아직은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얼마 동안 남북 조선의 현재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대로 활동하도록 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로 최고 민족 위원회를 만들고 주로 남북 조선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함께 조절하는 련방제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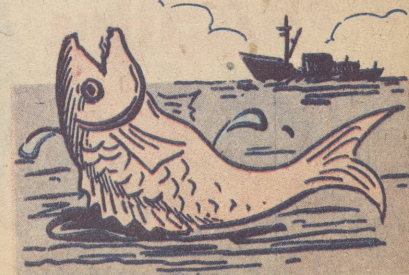
만일 이것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순전한 경제 위원회라도 만들어 남북 조선간에 물건을 서로 교류하며 경제 건설을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정치 문제는 젖혀 놓고서라도 공화국 북반부에 튼튼히 이루어진 중공업과 경공업의 힘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할 것을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남북간에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도 서로 교류하며 편지 거래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게 할 것도 또다시 제의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 조선간에 서로 믿고 도와 나가며 남조선 인민들을 높은 세금에서 벗어 나게 하기 위하여 군대를 쭈리자는 것도 제의하셨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라도 하루 속히 남북 조선 대표들이 모여 앉아 의논하자고 남[illegible] 조선 당국과 정당 사회 단체 또는 개별적 인사들에게 제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선 문제를 조선 사람끼리 해결 못할 아무런 리유와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선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는 강철의 당이 있고 북반부에 이룩해 놓은 튼튼한 혁명의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는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가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 세계 인민들의 성원이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사이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습니다.

이번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토의되였는데 그중 첫 문제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일제히 전개할 데 대한 문제이예요.

전원 회의에서는 지난날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인민 경제 발전에서 달성한 성과들과 기술 혁명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고 앞으로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로 올라서기 위해 더 빠른 시일 내에 기술 혁명 과업을 해결하도록 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공장들은 물론 농촌, 철도, 건설, 지방 공업 등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꾸리고 기계화, 자동화로 일을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내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 한층 높이자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기술 혁명 과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모든 밑천이 있답니다. 이미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와 기계 제작 공장들이 있고 또 그 기계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당의 부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 근로자 아저씨들의 애국적 열정이 있지 않아요.

그래 이번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오늘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을 기계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까운 몇 해 동안에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를 하루 바삐 이룩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래 농기계를 하루 속히 더 많이 생산해 1963년에 이르러 《천리마—28》 뜨락또르는 2만 대, 5—15마력짜리 작은 뜨락또르는 3만~4만 대, 화물 자동차는 5천 대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하게 하며 농기계 작업소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지요.

다음으로는 지방 공업을 기계화하는 문제이지요. 지금 우리 나라에는 당의 옳바른 정책으로 한 군에 평균 11개씩의 지방 산업 공장이 있는데 아직 낡은 수공업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대담하게 현대적 방법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식료품 생산을 더 늘쿠며 고기, 채소, 산과실, 수산물 가공 같은 것을 손로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업적 방법으로 가공하며 특히 지방에도 기름 공장을 만들고 옥수수 눈으로 기름을 짜게 하라고 하였지요. 물론 이 밖에 방직 공업이나 일용품을 만드는 데서도 기계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지요.

전원 회의는 건설 부문에서 흙을 파는 토공, 짐을 지고 오르내리는 일, 짐을 실고 부리는 것들도 모두 기계로 하도록하며, 기차, 자동차 또는 강에서 배로 운반하는 작업 등에서도 실고 부리는 일을 기계화하며 선로나 도로를 수리하는 것도 2~3년 안에 기계화하기로 하였지요.

수산업에서도 큰 배를 만들며 돛배들을 기계'배로 고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도록 하며 3~4년 안으로 배들을 현대적 설비로 갖추게 하며 고기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일까지 기계로 할 것을 결정했지요.

그리고 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중앙 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화와 자동화를 빨리하며 선진 기술을 끊임없이 끌어 들여야 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러자면 기계를 만드는 공업이 발전돼야 하므로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지요.

전원 회의는 이렇게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자면 낡은 방법 낡은 생각들을 대담하게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새로운 창안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힘을 덜고 인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전원 회의에서 둘째로 토의한 문제는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이지요.

해방 후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로 인민 교육이 일제 시대와는 비할 수가 없으리만큼 발전하였지요.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에 동양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했고 인구의 4분의 1이 각종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하나도 없던 대학이 37개로 늘었고 각종 기술 전문 학교와 학생 수도 놀라우리만치 늘었지요. 뿐만 아니라 당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앞을 내다 보고 형제 나라에 많은 류학생을 보냈지요.

그리하여 해방 당시는 불과 5천명 실이 밖에 안되던 기사, 기수 전문가들이 무려 10만 명으로 늘어 그들은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에 비해 볼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술 일'군들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1970년에 가서 기사 전문가들이 무려 23만 명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 때에 가면 대학 졸업생 수만해도 1959년의 7배 이상이 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수'자입니까! 그러니 이 많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자면 그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그래 전원 회의에서는 기술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대책으로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교들을 더 많이 늘구게 하였지요.

그러기 위해 첫째로는 공장, 기업소, 건설 직장, 병원 및 국가 농목장 등에다 기술 대학 및 고등 기술 학교들을 만들고 청년들이 일하면서 낮과 밤을 리용해 공부하게 하였지요.

둘째로 지금 있는 대학의 학부들의 학급을 늘구어 도시의 청년들이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도록 하며 세째로는 통신으로 교육 받는 사람들을 많이 늘구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학교들에서도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실습 공장을 만들고 학습과 생산 로동을 함께하는 일을 더 강화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하면서 단련된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 가므로 지금 있는 대학의 년한을 더 려 주리기로 하였지요.

이 밖에도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혀 로동 계급 속에서 기술 간부를 많이 키우기 위해 공장, 기업소, 농목장 등에 기술 학습반을 조직하며 검정 시험 제도를 더 강화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과 전문가들 속에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당과 혁명에 충직하도록 할 것이며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당의 이 정책을 받들고 기술을 배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기술 인재를 키워 낼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원 회의에서는 지난번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쏘련을 중심으로한 우리의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튼튼히 지켜내자고 하였습니다.

1

원주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이 찾아 왔다. 그처럼 바라고 바라던 유격대에 입대하게된 것이다. 새 군복을 차려 입은 원주는 름름하였다. 그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중대장 현칠 형님으로부터 보총을 받았다. 총을 받아 쥐는 순간 원주의 머리에는 벌써 자기 총에 쓸어지는 왜놈들의 더러운 꼬락선이가 선히 떠 올랐다.

2

중대장의 전령병이 된 원주는 금시 하늘에라도 오를 듯 기운이 솟아 올랐다. 중대장 현칠 형님과 거닐면서 원주는 자꾸만 자기의 군복이며 보총을 어루만져 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원주! 오늘부터 원주는 유격대원이란걸 잊지 말라구! 잘 싸워야지!》 현칠 형님은 다정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타이르듯 말하였다.

3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다. 사나운 눈보라의 아우성 소리만이 들려 올 뿐이다. 원주는 천막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앞으로의 싸움에 대해서, 행군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다지는 것이였다.

《그렇다! 나는 김 일성 장군의 혁명 전사다! 혁명을 위하여 조국 광복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리라!》

4

다음날도 눈보라는 기승을 부리며 몰아쳐 왔다. 중대는 새 전투 임무를 받고 출동하였다. 첫 싸움에로 나아가는 원주의 가슴은 높뛰였다. 그는 중대장 곁에 붙어 당당히 걸어나갔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적기가가 랑랑히 울리고 있었다.

5

어려운 행군은 연 3일에 걸쳐 계속되였다. 허리까지 빠지는 깊은 눈무지 속을 걸어가는 원주는 차츰 기운이 진하여 갔다. 그는 가쁜 숨을 쉬며 가까스로 중대장을 따라갔다. 중대장은 그의 배낭을 자기가 지려고 몇번을 권했으나 그때마다 원주는 딱 거절하면서 태연한체 하였다.

6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였다. 난데 없는 총성이 울리더니 련'이여 콩볶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려 왔다.

《전투 준비!》

중대장의 날카로운 구령과 함께 전체 대원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중대장 곁에 엎던 원주의 가슴은 금시 심장이 튕겨 나올듯 몹씨 고동쳤다.

(다음호에 계속)

8.15 해방 15주년을 경축하여 쏘련 인민이 세워준 동평양 대동강'가 쏘련 공업 농업 전람관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년단원들이 매일 같이 구경 온답니다.

전람관 문을 척 들어서면 제 1, 제 2, 제 3 인공 지구 위성과 함께 제 3 우주 로케트에 의해 촬영된 달의 뒤'면을 보여 주는 모형이 눈앞에 안겨 옵니다.

《야! 인공위성이다》 쏘련의 인공위성들과 우주 로케트에 의해 달의 뒤'면의 사진을 찍은 모형을 보며 감탄한다.

해설자 아저씨는 수천년간 꿈꿔 온 달 나라에로의 려행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세계에서 1 등가는 쏘련 과학의 찬란한 성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소년단원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누군가 《야! 기계가 사람보다 영리하구나》하고 떠들석하는 소리에 소년단원들은 최신식 기계들이 진렬된 앞으로 닥아 갔습니다.

전람관에 진렬된 선반, 볼반, 방직기계 등 수많은 최신식 기계들은 거의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일하는 기계들이 였습니다.

특히 수직 모사 후라이스반, 만능 후라이스반이라는 기계는 테프에 기록된 설계도에 따라 자기 혼자 규격대로 기계 부속품을 척척 깎아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쏘련에서는 지난시기 290 명의 로동자들이 일하던 뜨네쁘르 수력 발전소를 지금은 단 6 명이 움직이고 있고 레닌그라드에서는 300 키로메터나 되는 지역 내에 있는 20 개의 발전소를 불과 두 사람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놀라운 사실은 높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이지요. 바로 쏘련은 그러한 과학의 성과들을 생산에 그대로 옮겨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장에서 오신 듯한 아저씨들은 매우 감탄하시면서 수첩에 열심히 기록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 받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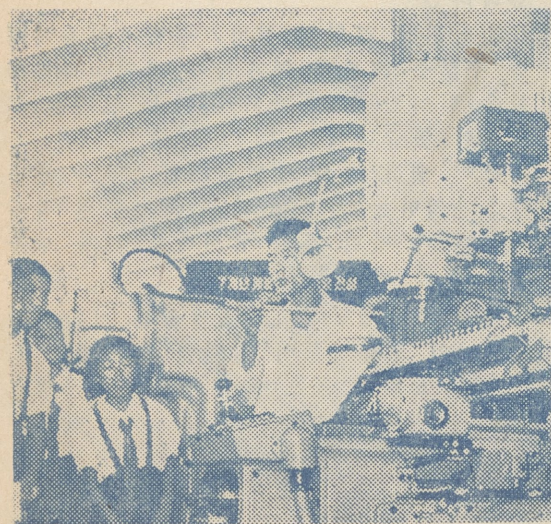
《우리도 이렇게 돼야지》

《아 그럼 쏘련을 향해 배우는데 못할게 어디 있겠소》

이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내놓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할 데 대한 과업을 생각하시며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걸린 쏘련의 7개년 계획 도표와 건설 모형들을 보고 《참 굉장한 계획이군》하고 앞날의 공산주의 나라 쏘련을 생각해 봅니다.

7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9년에 쏘련의 기계 제작 공업 및 금속 가공 공업만 봐도 짜리 로씨야 때인 1913년에 비해 270배로 늘었으니 얼마나 눈부신 발전 속도입니까!

이런 눈부신 발전은 쏘련이 공업품 생산에서나 모든 부문에서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으뜸가는 나라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야! 기계가 사람보다 영리하구나》 테프에 기록된 설계에 따라 자동으로 부속을 깎는 모사 후라이스반,

쏘련의 과학 발전을 말해 주는 기계들 앞에서 사람들은 떠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쉽게 계산하지 못하는 복잡한 계산을 하며 설계도 하고 설계한 것을 검열까지 해보는 전자 계산기를 사람들은 황홀해서 바라봅니다.

해설자 아저씨는 전자 계산기로 인공 위성의 움직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돌고 있는 인공 위성이 직접 전자 계산기에 나타났습니다.

동무들은 《위성이 돌아 간다》하고 손벽까지 치며 좋아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데레비죤은 전람관을 구경하는 소년단원들을 그자리에서 찍어서 영화처럼 수신기에 나타내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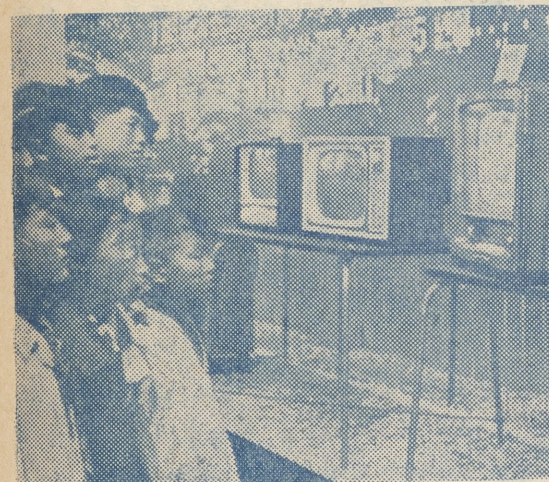
전자를 리용해서 만든 《극성 주파식 사

전자계산기에는 인공위성이 나타났다.

령 련동 장치》라는 기계는 한 사람이 앉아서 400 리나 되는 철도에 렬차들이 오고 가는 것을 손금처럼 바라보며 신호도 하여 떠나 보내기도 하고 멈춰 세우기도 하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몇백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해내며 사고를 없이하는 기계인 것입니다.

이밖에로 675메터까지의 바다 속 깊이의 고기 떼들을 찾아 내는 기계들을 비롯해서 원자력을 리용한 많은 기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쏘련에서는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목적에 원자력을 광범히 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쏘련에서는 각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원자력을 리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원자력을 리용하여 각종 최신식 기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데레비죤에 우리들 얼굴이 나타났다》 구경 온 소년단원들은 데레비죤에 나타난 자기 얼굴을 보고 좋아한다.

사람들은 쏘련의 눈부신 과학 발전을 보고 련신 감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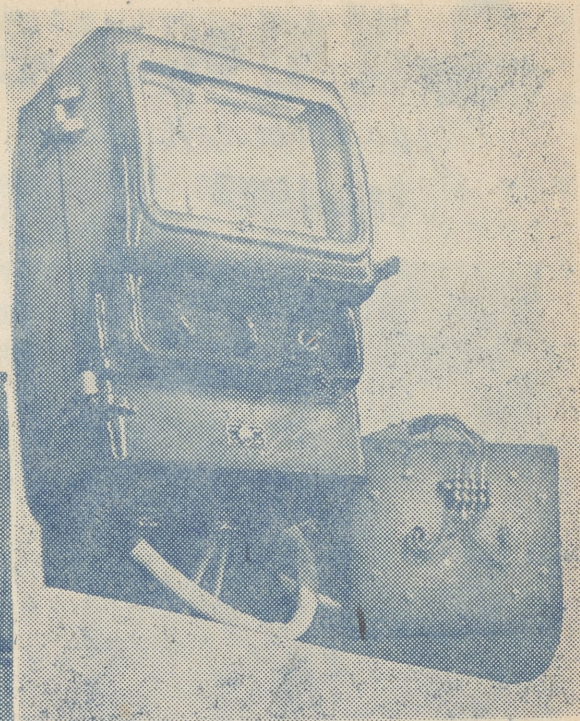
《야, 무지개 같구나》 녀학생들은 아름다운 천들이 진렬된 곳으로 몰려 갑니다.

500여종이 넘는 천들은 문양과 색갈이 아름다워 사람들을 감탄케 합니다.

특히 화학 섬유로 만든 카프론 천들은 다른 천보다 몇배나 질기고 아름다우면서도 값은 아주 눅은 것이였습니다.

카프론, 나이론으로는 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구두, 가방등도 만들었는데 가죽 같으면서 가죽보다 아름답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쏘련은 참말 행복한 나라이군》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감탄합니다.

농산, 축산을 보여 주는 곳에서도 사람

675메터의 바다속 깊이의 고기떼를 알아 내는 《어군 탐지기》

들은 오래 멈춰섭니다.

씨를 심고 추수를 할때까지의 모든 일을 모두 기계로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쏘련 농업 기술의 발전에 감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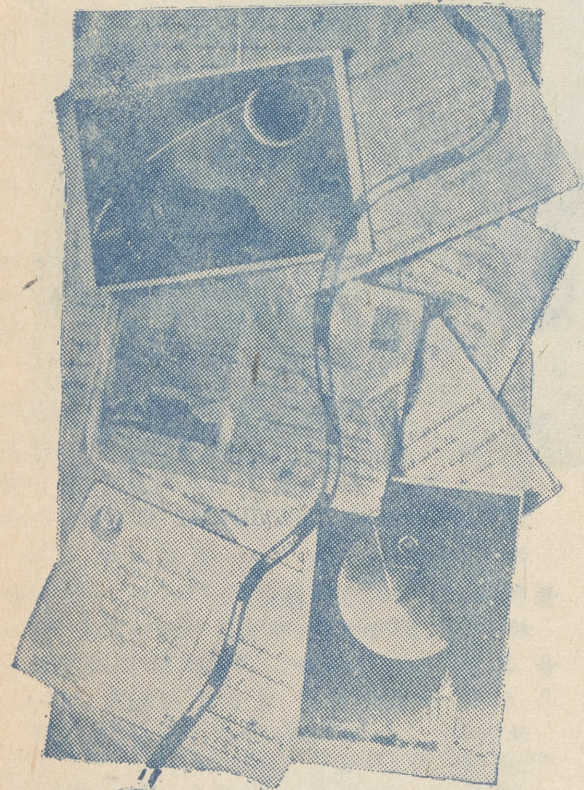
쏘련은 지금 면화와 유유, 빠터 생산에서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쏘련 목장들에서는 기계로 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500 마리의 가축을 키웁니다.》 해설자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년단원들은 모두 놀란듯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이밖에도 전람회장에는 공장, 광산, 건설 운수등 모든 부문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최신식 기계 설비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래오래 멈추게 합니다.

실로 이 전람관은 오늘 흐루쑈브 동지와 쏘련 공산당의 령도 밑에 인류의 락원—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위대한 쏘련의 발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며, 바로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형제 나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과 기쁨을 더 크게 해주며, 그 모범을 배워야겠다는 결의를 굳게 해 줍니다.

볼반에 기'든 친선의 마음

Урадивосток
(울라지워쓰또크)

정평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 중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가슴에 조선 소년단 휘장과 쏘련 삐오네르 휘장을 나란이 달고 다닙니다.

어느날 인민반 4학년인 문 정숙 동무가 울면서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왔습니다.

《단 위원이 울긴?》 하고 선생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었습니다.

정숙이는 동무들과 뛰놀다가 쏘련 삐오네르 휘장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사연을 안 선생님은 웃으시더니 《초급반 언니들이 주어 왔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상 설합에서 쏘련 삐오네르 휘장을 꺼내 주시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쏘련 삐오네르 휘장을 조선 소년단 휘장과 같이 귀중히 여기게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봄 어느 날 김 수옥 동무네 학급의 로어 시간이였습니다.

이날 로어 선생님은 쏘련 우라지워스또크 제 13 중학교 삐오네르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학교 삐오네르 동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며 누구나 다 선반 볼반을 다룰줄 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쏘련 뿌라우다 신문에 났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단 동무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들은 곧 편지를 떠워 그들의 훌륭한 경험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단 위원회에서 의논되여 작년 6월에 소년단 기'발과 함께 저마다의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적은 친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작년 10월 마지막께 우라지워스또크 제 13 중학교에서는 많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물 중에는 탁상 볼반, 쏘련 삐오네르 휘장, 그림 엽서, 재미있는 소설 책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루쇼크에서 삐오네르 동무들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탁상 볼반에는 로어로 두 학교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서로서로 편지와 선물을 나누어 보며 멀리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었습니다.

《훌륭한 공작실이 됐구나!》

선반기 곁에 탁상 볼반을 가져다 놓으며 크루쇼크원들은 기뻐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린 뒤떨어졌어》

크르쇼크 책임자인 김 기환 동무가 무엇인가 생각한듯 불숙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이들은 모임을 가지고 우라지워스또크 제 13 중학교 삐오네르 동무들처럼 크루쇼크 활동을 잘 할 데 대하여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선반기와 볼반을 다룰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자는 것도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결의한 크루쇼크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이들도 이 볼반을 리용해서 기술을 배우는 한편 파고철과 여러 가지 부속품을 모아 선반기 한 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단야에서 벼려 선반기로 깎은 다음 바이스에서 다스려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이 보내 준 볼반으로 구멍을 뚫려 맞추었지요. 그리하여 드디여 지난 2월에는 크루쇼크에서 만든 바이스와 내경파스, 외경파스를 만경대 학원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게까지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실을 곧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지금 이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엔. 에쓰. 흐루쑈브 수상의 우리 나라 방문과 10월 혁명 기념 일을 맞으며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이 보내 준 볼반을 리용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보낼 소형 선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치만 넣으면 두 나라 소년들의 영원한 친선을 노래하듯 윙윙 모타가 돌아 가며 두터운 철판도 잠시'동안에 구멍을 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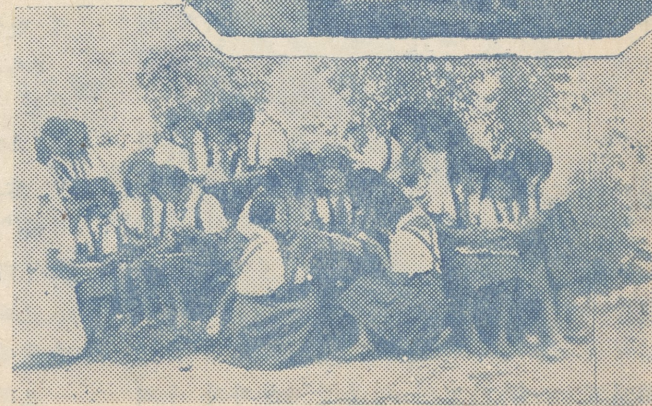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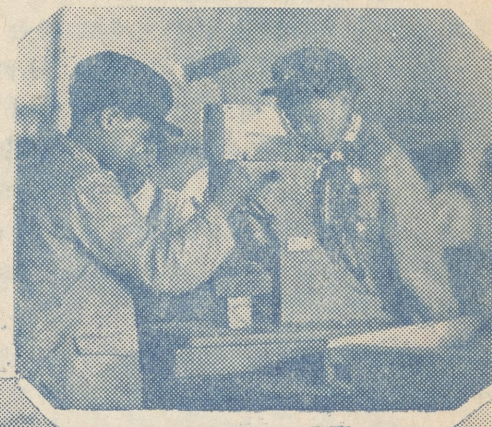
요지음 깔라쉬니꼬바 엘레나 동무에게서 신 경삼 동무에게 온 8.15 명절을 축하하는 편지에는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경삼이도 크루쇼크에서 하고 있는 일과 탁상 볼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보냈습니다.

정평 중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이렇게 우라지워스또크 제 13 중학교 삐오네르 동무들과 가장 친근한 동무로 되였습니다. 수천 수만리 끝에서 끝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두 나라 아이들의 친선의 마음은 계속 뜨겁게 오고 갑니다. (본사 기자)

우라지워스또크 제13 중학교에서 선물로 보내온 탁상 볼반 →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일가?》 《어서 빨리 읽으라》 친선의 편지는 끊임없이 오고 간다. ↓

로동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배운다

—평남 평원군 월일 중학교 단에서—

글 조 병권

그림 어 순우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내용 있고 실속 있게 꾸리고

교문을 들어 선 나는 교원실로 가는 것도 잊고 격조 높이 읊는 시 랑송 소리와 노래 소리에 끌려 어느 한 교실로 들어 갔다. 제 8분단 동무들이 다가오는 조선 로동당 창건 15주년을 (10월 10일) 앞두고 바라이테 《영원한 불'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 김 일성 원수님의 항일 빨찌산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로동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내닫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것이였다.

《우리 분단에서는 로동당이 걸어 온 길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이 바라이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장편 서사시 《백두산》과 해방후 로동당이 걸어 온 길을 시기별로 나누어 쭉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령도하에 조선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내용으로 한 시, 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내용으로 해서 바라이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바라이테는 우리 분단의 전체 동무들이 참가했습니다.》

분단 위원장 선우 금주 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나 다 시도 읊고 노래도 잘 부르고 혁명 전통 내용을 잘 알게 되였다고 자랑했다.

나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로 갔다. 연구실에서는 크루쇼크원들이 스크래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진을 이렇게 부치고 여기에 이 글을 주면 될가?》

《그건 인민반 동무들이 볼건데 글이 너무 많고 어렵구나 좀 쉽게 고치자.》

한 태준 동무와 김 복실 동무는 《조선 로동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스크래프를 편집하면서 인민반 동무들의 수준에 맞게 만드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크루쇼크원들은 모든 동무들의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인민반 1~2학년 동무들이 볼 것, 인민반 3~4학년 동무들이 볼 것, 그리고 초급반 동무들이 볼 것 등 따로따로 만들고 있는 것이였다.

《우리는 기념일 때마다 다양한 사업을 조직하고 이렇게 스크래프를 많이 만들어 연구실을 더 풍부히 꾸리고 있습니다.》

최 창녀 동무가 말하는 것이였다.

이들은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조선 로동당이 어떠한 당이며 어떤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왔는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도표로 해방전 김 일성 원수님의 항일 빨찌산이 걸어 온 길과 해방후 평화적 건설 시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등 시기별로 나누었다. 그리고 매 시기에 따르는 자료들을 모아 스크래프, 그림 이야기, 사진첩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은 기념일을 통하여 광범히 진행하였다. 이번에만해도 조선 로동당 창건 15 주년을 맞으며 조선 혁명 박물관 견학을 조직하기로하였다. 그리고 리당 위원장 아저씨를 모시고 당의 령도 하에 해방후 자기 고향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듣는 이야기 모임도 가졌다. 이렇게 연구한 자료들로 《조선 로동당의 뿌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로동당은 우리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로동당》 《우리 고향의 어제와 오늘》을 비롯해서 여섯개의 스크래프를 새로 만들어 연구실에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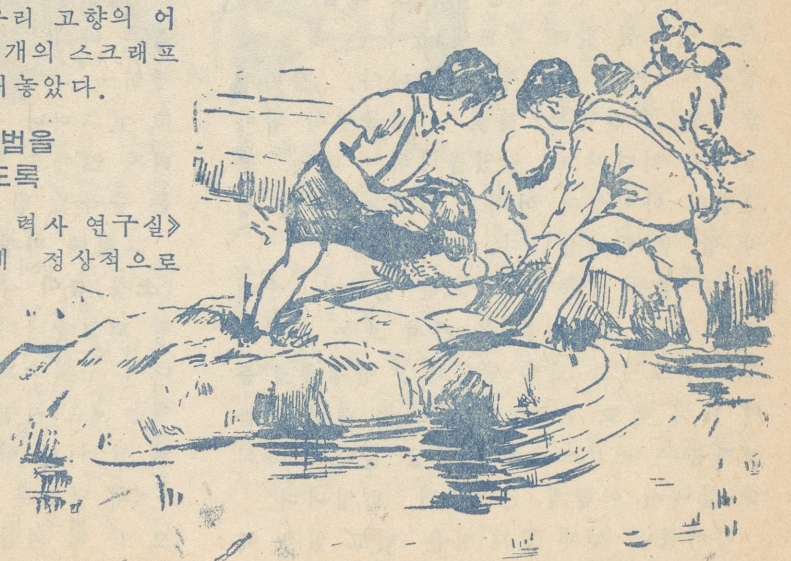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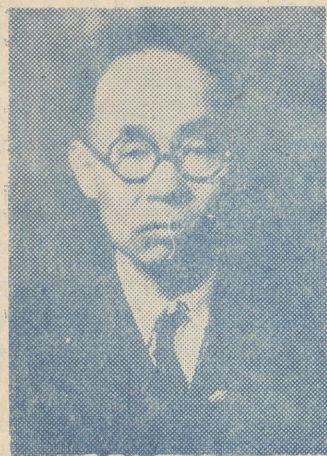
항일 빨찌산의 모범을 생활에서 본받도록

학교에서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자기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 학교의 장 청수 동무를 비롯한 일부 동무들 가운데서는 조합 과수원에 들어 가 과실을 따는등 조합 재산을 사랑할 줄 몰랐다. 그래서 크루쇼크에서는 5월부터는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크루쇼크를 운영하도록 계획하였다. 크루쇼크에서는 전체 동무들에게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의 것이라면》 《오이 밭의 할아버지》등을 읽도록 도와 주었다. 인민반 동무들에게는 이 내용을 그림극으로 만들어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소년단원들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인민의 것이라면 한알의 식량, 한 오리의 실이라도 다치지 않았으며 귀중히 보호하였다는 것을 배웠다.

분단들에서는 《항일 빨찌산처럼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며 보호하자》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지였다.

국가 사회 재산을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동들이 날로 늘어 갔다.

6월 초였다. 월일 농업 협동 조합에 모내기를 도우려 나갔던 제 4분단 동무들은 터진 동'둑을 몸으로 막아 둑 밑에 자리 잡은 500평의 조합 모판의 벼'모를 구해냈다. 지금도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들을 칭찬하여 이렇게 자랑삼아 말씀하시군 한다.

《그애들이 아니였더라면 우리 조합에서는 올해 벼 농사에 대단한 손해를 볼번 했수다. 물 사태가 모판을 온통 밀고 나갔겠으니 벼'모가 쓰게됐겠소. 참 기특한 애들이지요》라고.

동무들은 행복합니다

량강도 풍산군 미감 중학교 교장
공훈 교원 지 영 득

나는 32년 동안 교편을 잡아 오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배워 준 많은 동무들이 오늘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충직한 아들 딸로 사회주의 건설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원 생활을 한 지난 날이 모두 이렇게 기쁘지는 못하였습니다.

내가 일제 때 한 교원 생활이란 정말 괴롭고 쓰라린 나날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헐벗고 굶주리는 화전민의 아들 딸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풍산군 양신 신상 소학교에서 교원을 시작한 이듬해인 1928년 여름 어느 날이였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조선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는 《죄》로 왜놈 경찰서에 불리워 갔다 학교에 돌아 온 것은 점심때가 거이 되여서 였습니다. 장마철 습기찬 교실에는 몇몇 아이들만이 남아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그밖의 아이들이 어데로 갔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으란 말이다, 수업료와 교사 수리비를 못 가져 오는 애들은 학교에 오지도 말란 말이다.》 안경을코'등에 내려 걸고 함지박만한 배를 내민 왜놈 교장놈은 독살스러운 눈알을 굴리며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울려댔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찾아 고개'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기던 한 아이가 나를 보자 그만 주춤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 정섭이란 학생이 였습니다. 돈을 못 가져 온 그는 학교에 나왔다가 교장놈께 쫓기워서 저녁 끼니를 잇기 위하여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섭의 부모는 부대기를 허가없이 일궜다고 산림 간수놈에게 붙잡혀 간후 소식이 없는 것이 였습니다. 더덕더덕 기워 입은 옷은 찌져저서 어깨가 들어나고 짚신을 신은 발에선 가시들과 옹이에 긁히워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섭의 손목을 잡고 학교에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돌려 보낸 애놈은 왜 도로 데려 왔소?》 교장놈은 웨치듯 쏘아댔습니다. 《애들을 너무 그러지 마시오, 화전민의 자식들이 어데서 갑자기 그 많은 돈들을 가져오겠소. 이번 이애의 돈은 내가 내겠소》 노기 덩덩하여 앉아 있던 교장놈은 나의 말을 맞받아 차며 《흥… 지 선생이… 그 요즘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하고 슬그머니 위협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쪽발이(일본놈)들에게서 나는 주목을 받고 있던 참이였습니다.

그런때 마침 파발리에서 주재소 수석(소장)놈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통에 애무하게 나는 또 다시 주재소로 불리워 갔습니다. 나의 등에는 《요 시찰인》 (감시를 해야할 사람이란 말)이란 딱지가 붙게 되였습니다.

《왜 당신은 일본 력사를 배워 주질 않고 쓸 데 없는 조선 노래를 배워주오?》

그후 나는 세번이나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살던 삼포촌에는 40~50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나 모두가 구차해서 겨우 몇 명의 아이들만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는 어느날 똑 같은 두 아이가 나무'짐을 벗어 놓고 땀을 드리면서 돌로 땅에 글을 쓰며 익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선동이와 후동이라는 남자 쌍동이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잃고 부모의 빚 갚으로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데려 왔습니다. 그리고 빚도 더러 갚아 주고 공부도 시켰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이고 세 동생을 남의 집 머슴으로 보낸 후, 나역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고된 로동에 시달리며 배우지 못해 안타까워 남몰래 울던 일을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선동이와 후동이를 공부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했지요.

숨 막히던 두메산'골에도 해방의 해'살은 비쳤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교원이 되였습니다.

정말 해방 후 15년 동안의 나의 교원 생활은 웃음과 기쁨의 나날이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대학 교원으로 부터, 인민군대에서, 군당 위원장, 공장 지배인 등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 마다 사회주의 조국에서 우리 당의 인민 교원으로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군 합니다.

나는 금년에 환갑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동무들처럼 해마다 젊어 지는것만 같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15년전 내가 배워 주던 아이들은 겨울에도 베잠뱅이에 짚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배우며 자라는 동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업료란 무엇인지 조차 모르며 교복과 외투까지 타입으며 공부하는 세상! 정말 이 행복을 어데다 비기겠습니까! 나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시대에 사는 동무들에게 《동무들은 행복합니다》라고 천만번 소리 높이 웨치고 싶습니다. 동무들은 한시도 이 행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무들이 행복한 이 시각에도 남쪽 땅에선 동무들과 같은 어린 동무들이 학교에 갈 나이에 학교는 고사하고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그의 앞잡이 지주, 자본가 놈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미국 놈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사업도 잘하여 김 일성 원수님의 붉은 전사로서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씩씩하게 준비해 나갑시다.

☆ ☆

조국 앞날의 쓸모 있는 일군으로

—평북 철산 초등 학원 단에서—

글 최 옥 선

모두가 자기의 취미에 따라

단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학원 목공 크루쇼크실에 들어 섰을 때입니다.

목공 크루쇼크원들이 분주히 의자를 짜고 있는 한가운데서는 남학생과 녀학생이 서로 새로 짜놓은 의자를 잡아 당기며 떠들썩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대패질을 하고 있던 통통하게 생긴 한 학생이 만족해서 웃음을 지으며 《내 더 멋있게 만들어 줄게 그 의자는 재봉 크루쇼크에 주자》하고 남학생의 손을 잡아 당기는 것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동무가 짠 의자가 더 맵씨 있다고 서로 자기 크루쇼크실에 가져 가겠다는 것이였어요

나는 그 동무(안 제황)곁으로 가까이 다가 가서 《동무는 어느때부터 크루쇼크에 들었습니까? 참말 재주가 용하구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작년부터 크루쇼크에 들어 왔는데 작년에는 재미가 없어서 크루쇼크 생활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하고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기술 크루쇼크에는 몇사람이 모여 문고리 하나만을 몇달씩 계속 만들군 했습니다. 때문에 제황이 뿐만 아니라 크루쇼크원들 대부분이 재미 없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19일 평양 남산 고급 중학교를 방문하신 김 일성 수상님께서 학교에서 크루쇼크 활동을 잘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학원에 전달된 후부터 그들의 사업은 딴판으로 달라졌던것이지요.

이후 단 위원회에서는 수상님의 말씀을 따라 지난날과는 달리 크루쇼크를 고쳐 조직하고 그 운영 방법도 고쳤던 것이지요. 공작, 목공, 철공, 축산, 수산, 가사, 재봉, 물리, 화학 크루쇼크 등 각가지 크루쇼크를 조직하고 몇몇 재간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취미에 따라 크루쇼크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황이도 다시 크루쇼크에 들어와서 오늘처럼 재주를 키웠다는거예요.

단 위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크루쇼크의 날로 정했습니다. 크루쇼크에서는 학과 시간에 배운 것을 실지 실습해 보기도 하고 뻰찌, 톱, 자구등 도구 사용법부터 시작하여 볼반, 선반, 목선반 다루는 법을 차례차례 배웠지요. 도구 사용법이 손에 익혀지자 학교에서 자기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실험기구, 액틀, 악보받치개, 백묵통을 만들었고 차차 기술이 필요한 호미, 낫, 도끼등 농기구를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책상 의자를 멋있게 만들게 까지 되였지요. 그들이 크루쇼크실에서 일하는 책상 의자도 모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였는데 참말 훌륭했습니다.

나는 《크루쇼크원들은 참 기특한 동무들이군요》하고 칭찬했더니 곁에 섰던 녀학생이 《우리 재봉 크루쇼크원들은 동무들에게 교복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 걸요》하고 말하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바로 제황이가 짠 의자를 가져 가겠다고 다투던 재봉 크루쇼크원이였어요. 그래 나는 재봉 크루쇼크에도 가보게 되였답니다. 재봉 크루쇼크원들은 참말 능숙하게 재봉기를 다루며 교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솜씨는 능숙한 재봉사의 솜씨와 꼭 같았습니다.

나는 녀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재봉기를 잘 다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재봉 크루쇼크 책임자 김 복실 동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크루쇼크원들중 인민반 4학년 이상 녀학생들은 누구나 다 재봉을 잘합니다.》 라고 신이 나서 말하는것이 아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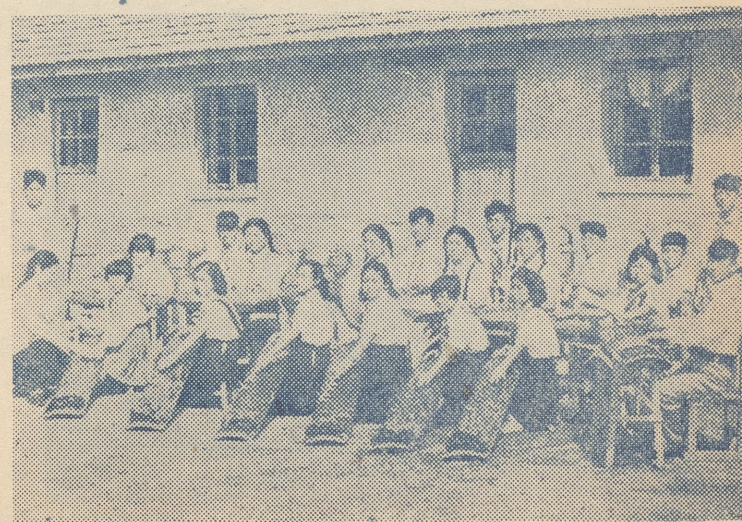
알고 보니 이 학원의 크루쇼크 사업은 크루쇼크원 자신들이 학과를 실습하고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기술을 보다 많은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 더 큰 성과가 있었어요.

항상 크루쇼크원들은 분단 동무들에게 배운 기술을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이였어요.

한편 단 위원회에서는 단 총회 때 크루쇼크의 성과를 자랑하는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를 조직하군 했지요. 그리고 이때에는 크루쇼크 사업에서 모범이고 배운 기술을 많은 동무들에게 가르쳐 준 동무들에게는 표창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학원 동무들은 모두 수상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졸업할 때까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있는 열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술가》

식사를 끝낸 저녁이였습니다. 환하게 전등 불을 밝힌 연못'가에서 군중 무도회가 버려졌습니다. 이 학교 소년단원 300 여명중 악기를 들고 나오는 학생들이 100여명이나 되였고 악기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하는 동무들이 모두 배우들 같았습니다. 나도 그들 틈에 끼워 놀면서 음악 크루쇼크 책임자인 리 금옥 동무와 이야기를 하게 되였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써클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춤추는 동무도 많지 못했지만 악기를 다룰줄 아는 동무는 정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옥 동무는 평양 남산 고중을 방문하신 수상님께서 학생들은 언제 어데서나 노래 부르고 춤출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룬다.

줄 알며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줄 알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학원의 연예 써클은 거이 무대의 출연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는 나라에서도 많은 악기를 사 주었고 자기들의 힘으로 민족 악기, 피리, 관악기, 소고, 하모니카등 300여개의 악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 거의 매 학생에게 한개씩 악기가 차례졌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많았으나 미처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연예 써클의 날로 정하고 이미 악기를 배운 연예 써클원들이 분단을 맡아 악기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은 악보 보는법, 민족 악기 연주법을 가르쳤습니다.

얼마간 지나 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대항 연예 써클 경연 대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경연 대회에서는 분단 전체가 악기를 타도록 했는데 그것도 각가지 악기들을 다 가지고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경연 대회를 앞둔 학원은 써클의 날 뿐만 아니라 방과 후만 되면 분단들에서 악기를 타는 련습을 하는 소리로 흥성했습니다.

이들은 옷도 잘 만든다.

이리하여 지난 6.6절에는 150명 합창단과 100명의 악단이 출연하여 대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악기를 하나씩은 다룰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춤 추고 명랑하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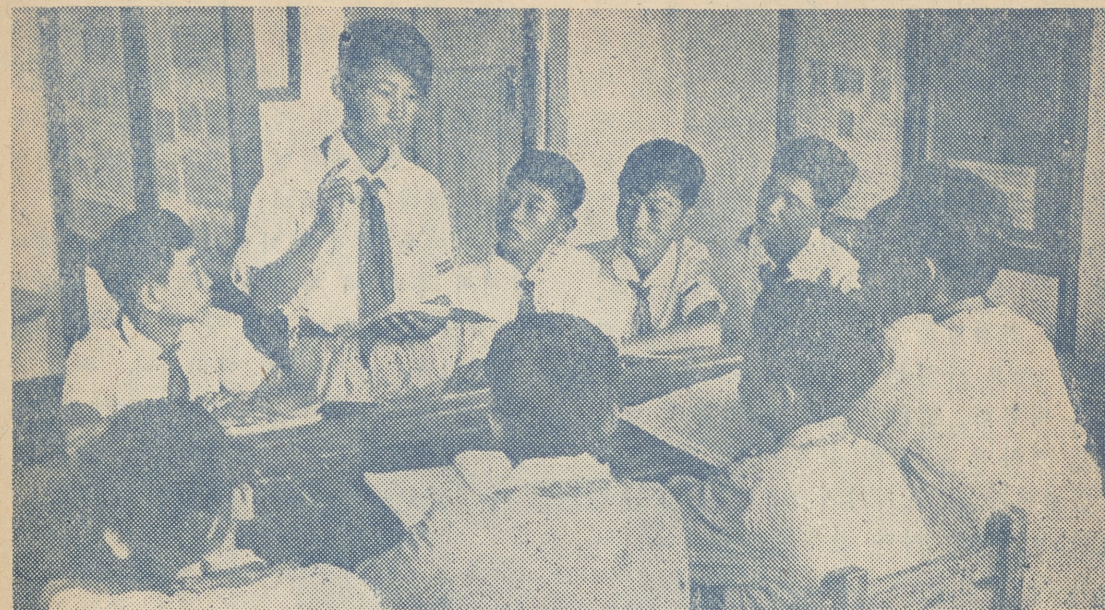
× ×

이 학교 동무들은 크루쇼크 모임, 발표회, 무도회, 경연 대회, 체육 경기 등을 자기들 끼리 척척 조직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배우며 악기를 배우기 위해 크루쇼크에 참가하고 동무를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면서 자기들 일은 자기가 하는 좋은 품성을 키웠습니다.

4분단 동무들은 남녀 학생이 서로 서로 기술을 배워 주고, 악기를 배우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화목한 분단이 되였습니다.

4분단 문 준길 동무는 학습을 게을리하고 자기 집단을 떠나 나쁜 작난만 하던 동무였습니다. 그는 예술 써클에 들어서 피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집단을 떠나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더우기 분단에서 준비하는 연극에서 모범 소년단원으로 출연하더니 참말 최우등생이 되였으며 동무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쇼크 생활은 기술을 배우게하며 악기를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집단을 튼튼히 꾸리는 데 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학교 단 위원장은 자랑삼아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가장 앞선 분단으로 되기까지

—평남 남포시 남흥 중학교 단 12 분단에서—

최 동 식

분단 위원 표식

지난 해의 이야기다.

분단 위원회 선거가 있은지 한 주일이 지났다. 분단 위원장 박 순겸 동무는 분단 위원들에게 분공한 일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분단 위원들의 모임을 열었다.

분단 위원들 중에서 누구도 분공된 일을 실천하는 동무가 없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모두 다 분단 위원 표식을 달고 있지 않는 일이였다.

순겸이는 소년단에 입단한 후 내내 위원으로 뽑혀서 사업해 왔지만 이런 일은 이 분단에 와서 처음이였다. 순겸이는 새 학년도에 이 분단에 왔다.

《우린 몇몇 아이들이 시비를 건다고 해서 위원 표식을 떼여서는 안돼, 분단 전체 아이들이 달아 준거야 우리에겐 절대로 그걸 뗄 권리가 없어》

순겸이가 이렇게 말하자 리 정훈이가 불쑥 일어서며 말했다.

《권리가 있으면 너 혼자서나 달고 다녀라, 난 위원 안 하겠다》

이리하여 모임은 흩어지고 말았다.

혼자 남은 순겸이는 앞으로 분단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순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분단 위원들을 하나하나 묶어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순겸이는 처음 벽보 주필 창렴이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렴이는 몹시 사업하고 싶어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순겸이는 창렴이부터라도 사업에 끌어 들이기로 하고 《소년 신문》《소년단》의 독보 사업을 맡겼다.

다음 날 전체 아이들을 억지로 남게 하고 창렴이더러 신문을 독보시켰다. 그런데 듣는 아이는 몇밖에 안 되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제멋대로 지꺼려대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야단을 부렸다. 창렴이는 읽던 제목도 채다 읽지 못하고 말았다.

순겸이는 여기서 자기가 창렴이 사업을 잘 도와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창렴이를 고무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독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함께 하였다. 이번에는 혁명 전통에 대한 그림 이야기 《고난의 40일》을 골랐다.

창렴이가 그림 이야기 《고난의 40일》을 읽어 내려감에 따라 처음에는 부산스럽던 교실 안이 차츰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바스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창렴이는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성과를 거두게 될 줄은 몰랐다.

순겸이는 곧 창렴이의 경험을 듣는 분단 위원들의 모임을 열었다.

그리하여 다른 위원들도 인제부터는 분단 사업에서 기운을 얻었다.

다음날부터 모두 위원 표식을 달고 학교로 나왔다.

너희들은 참 좋은 아이들이다

분단 사업은 로 정일, 한 봉삼이를 비롯한 몇몇 말썽 꾸러기 아이들 때문에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순겸이는 이애들을 위원들이 한 아이씩 맡아서 고쳐 주자고 하였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말했다. 그러나 정작 누구는 어느 아이를 맡으라고 분공을 주면 모두 물러섰다. 아직도 그 애들을 두려워 하고들 있었다.

그래서 순겸이는 자기가 우선 모범을 보이기로하고 가장 어려운 아이인 로 정일을 맡아 나섰다.

어느날 수업 시간에 정일은 크게 고함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하였다. 그 시간이 끝나자 순겸이는 정일을 불러서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자 정일은 주먹을 부르 쥐고 《분단 위원장이면 단줄 아니?》하면서 순겸이한테 대들었다.

순겸이는 정일이 아버지가 지난 전쟁의 일시적 후퇴 때 자기 아버지처럼 적들에게 학살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일아, 내가 너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학살한 그 원쑤놈들과 같다면 얼마든지 때려라!》

순겸이는 침착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정일의 주먹 밑에 가슴을 내밀었다.

정일이는 이 말에 들었던 주먹을 도루 내리우고 말았다.

《내가 뭐 널 정말 때리자고 그런줄 아니, 그저 울려보느라고 그랬지》

이날 저녁 순겸이는 정일이네 집을 찾아 갔다. 정일이는 다음 날에 도장을 새겨 가지고 (도장을 잊어 버렸기 때문에) 쌀 배급을 타러 가야 하겠기 때문에 결석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은 어머니하고 단 둘이서 사는데 어머니도 공장에 다니느라고 바빴다.

이런 사정을 알게된 순겸이는 정일에게 모든 일을 도와 줄테니 학교에 꼭 나오라고 타일러 주었다.

이튿날 아침 정일은 학교에 나왔다. 순겸이가 나타나더니 자기 어머니 이름을 새긴 도장을 내미는 것이였다. 순겸이는 밤 새워 이 도장을 팠던 것이다. 이 도장을 받아 쥔 정일이는 그제서야 위원들이 하는 일의 참뜻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너희는 참 좋은 동무들이였댔구나……》

순겸이가 정일를 고처 준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위원들도 자기가 맡은 아이들과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말썽 꾸러기

애들은 차츰 고쳐져 좋은 아이들로 되여 갔다.

승리는 12 분단에

말썽 꾸러기 아이들을 아직 완전히는 고치지 못했지만 인제 분단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분단 위원들은 말썽 꾸러기 아이들을 하나하나 맡아 가지고 고쳐 나가면서 한편 분단 아이들이 좋아 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분단 아이들의 대부분이 체육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분단 아이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체육부터 진행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경쟁심이 차츰 높아졌다.

이런 점을 알게된 위원들은 반별 축구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축구 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2반 아이들의 단결심, 규률, 도덕 품성을 더 크게 보기로 하였다.

순겸이와 동무들

이렇게 하여 한 주일 후에 반 대항 축구 경기를 진행하였다.

반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마침 이 지음에 학교 단 위원회에서는 한달 후에 분단 대항 체육 경기를 진행할 것을 결정지었다.

이 소식을 알게된 분단 위원회는 《분단 대항 체육 경기에서 우리는 꼭 1 등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하였다.

아이들은 모두 이번 분단별 체육 경기에서 체육 뿐만 아니라 규률, 위생 문화 도덕 품성에서도 모두 으뜸이 되자고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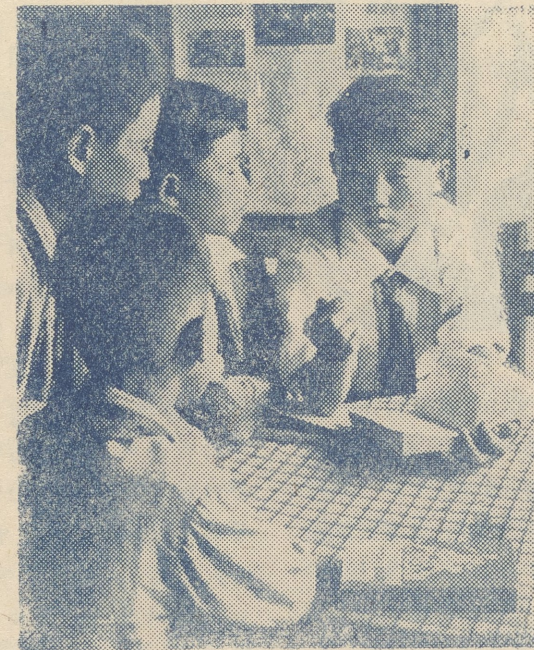
이 모임이 있은 다음 날부터 전체 분단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여 체육 대회를 하루 앞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분단이 체육 대회에 참가할 준비 사업을 그렇게도 애써 지도하여 주시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나오시지 못하게 되였다. 아이들은 이 소식을 알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두 운동장의 한 구석에 모였다.

모두들 래일 체육 대회에는 선생님이 못 나오시는 것 만큼 어느때보다도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야 겠다고들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단들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하자고들 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였다. 이 분단 동무들만은 거리에서부터 기'발을 휘날리며 혁명 가요 소리도 드높이 씩씩하게 행렬을 지어 교문으로 들어 왔다.

이날 체육 대회에서 이 분단 동무들은 체육도 잘 했지만 무엇보다도 규률을 잘 지켜 전체 아이들의 눈을 끌었다.

이날 단 위원회에서는 이 분단에 1 등의 영예를 주었다. 그리고 이 분단 동무들을 모두 단 기'발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남녘 땅에 새날이 동터오고 있다

글 김창길　　　　그림 장기복

해방 후 15년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천대 받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노한 사자와 같이 일떠서 매국노 리 승만 역도를 몰아낸 결과 지난 3.15 《선거》는 무효가 되고 지난 7월 29일 또 다시 남조선 괴뢰 국회 선거 놀음이 벌어졌다.

이 선거 놀음은 미제 원쑤놈들이 리 승만을 대신하는 새 괴뢰놈을 내 세워 새로운 괴뢰 정부를 만들고 계속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만들 것을 목적한 꾀임이였다.

미제의 딸라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면서 리 승만과 함께 잘아난 《민주당》의 우두머리 놈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무 총리》와 같은 높은 벼슬자리에 들어 앉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였다.

미제 원쑤놈들과 《민주당》 우두머리 놈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느니 또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 하겠다니 어찌니 하면서 달콤한 거짓말을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속여 넘기려고 애썼다.

《민주당》 우두머리 놈들은 인민들한테서 빼앗아 낸 수백억 환의 돈과 술을 가지고 반동놈들의 인심을 사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선거표》를 긁어 모았다.

그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부정 선거 놀음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3만 4천 여 명의 살인 경찰놈들을 풀어서 《특별 경비》를 세우고 7월 28일 초 저녁부터는 사람들이 행길조차 다니지 못하게까지하였다.

그리고 매개 선거구 마다에는 여러 가지 경찰 테로단을 배치해 놓고 총칼을 번득이며 대리 투표, 2중 투표, 바꾸어 치기, 무데기표 등 온갖 더러운 속힘수와 꾀임 수를 써서 《당선》을 꾸며냈다.

미리부터 미제 원쑤놈들과 《민주당》 우두머리 놈들이 하는 비렬한 수작에 매우 성나오던 남조선 인민들과 청소년들은 《선거》 협잡에 격분하여 《선거장》을 까부시고 《선거함》을 불태워 버리는 용감한 투쟁을 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1만 여 명의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민주당》 우두머리들의 협잡에 격분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습격하고 투표함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리 승만의 졸개인 최 씨란 놈이 《립후보》한테 격분하여 3,000 여 명의 고성 주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개표소에 불을 지르고 88개의 투표함을 불태워 버렸으며 발악하는 괴뢰 경찰놈들을 24명이나 때려 물리쳤다.

경찰놈들은 혼쌀이 나서 도망쳤다.

대전, 울산, 3천포 등 남조선 각지에서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선거 다시하라!》고 웨치면서 용감히 싸웠다.

이와 같이 이번 남조선 괴뢰 《국회 선거》도 란장판이 되였으며 뒤죽박죽이 되였다. 지난 8월 8일 서울에서 괴뢰 《국회》가 열리는 날에 살인 경찰놈들이 총칼을 숲처럼 빽빽히 세우고 망을 보는 가운데서도 1만 여 명의 서울 시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선거 다시하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마산 인민 봉기로부터 5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의 불'길은 활화산처럼 더욱 더 높이 타오르고 있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새 생활 계몽대》는 서울 시내에서만 하여도 2천 여 통의 미국 담배를 모아 놓고 세종로 거리에서 불태워 버렸다.

만일 남조선에서 1년 동안에 미국놈의 양 담배와 커피를 쓰지 않는다면 그 돈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1개월 분 배급 식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수천 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미국의 상품을 배척하는 애국 운동을 더욱 더 넓히고 있다.

수원 농업 대학 학생들, 대구 시내 학생들, 부산 남성 녀자 고등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지 학생 소년들이 양담배를 피우지 말것을 요구해 계속 투쟁을 넓히고 있다.

임금을 올리라! 일자리를 달라! 민주주의적 권리를 달라! 고 하면서 남조선 로동자 아저씨들의 투쟁도 더욱 더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인천 부두 로동자 아저씨들은 임금 인상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여 파업을 하고 괴뢰 경찰서를 습격 파괴하였다.

경상북도 《달성 광산》에 있는 박 기출 아저씨를 비롯한 여러 광부 아저씨들이 영양 부족과 피로로 해서 《폐병》에 걸려 일을 많이 못하게 되자 광주놈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였다.

광주놈들의 이 악독한 행동에 격분하여 이 광산 로동자들은 괴뢰 당국에 항의하고 있으며 계속 광주놈들의 만행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힘찬 투쟁은 남녘땅에 해방과 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고 있다.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그간 석달은 너희들과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래 이번엔 모두들 무슨 자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느냐?

길남—할아버지 우리는 여름 방학에 물리 크루쇼크실에서 라지오에 대한 지식을 익히면서 전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들을 하였어요. 서로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파와 라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왔습니다.

척척 할아버지—그건 참 자미 있는 문제이다. 모두들 앞날의 위대한 라지오 파학자가 될터이냐?

길남—예, 기술자가 될테예요.

척척 할아버지—너희들이 강에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떤 것을 볼수 있더냐?

길남—물결이 파문을 이루키며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보았어요

척척 할아버지—전파란 바로 물결의 파문처럼 전기의 작용이 공간에 퍼져가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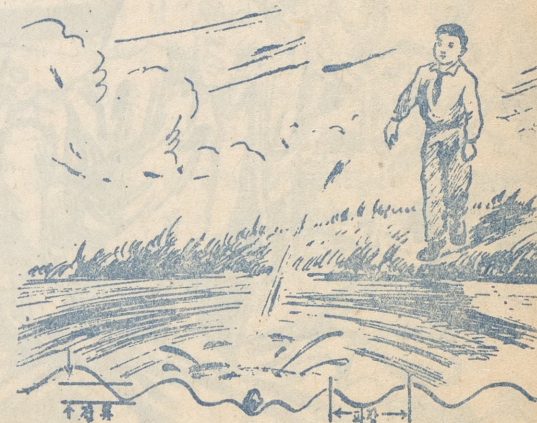
길남—그러면 전파는 우주상 어느곳에든지 갈 수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암 그렇구 말구, 그래서 전파로서 지구상 어느곳에서나 서로 련락을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전파를 리용하여 라지오도 듣고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먼 바다로 항행하는 배와도 련락을 가지며 땅속의 보물을 알아내기도 한다.

순녀—할아버지 매일 평양 방송국에선 장파, 중파, 단파 몇 싸이클로 방송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척척 할아버지—너희들이 모를 수 있다. 싸이클이란 주파수란 말과 같다. 주파 수란 것은 한초 동안에 일어나는 전기의 파동을 말한다. 례를 들면 보통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전등불의 주파수는 60 이다. 이것을 60 싸이클이라고 한다.

보통 라지오에는 주파수가 1,0000부터 3×1,000,000,0000이나 되며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전파를 고주파라고도 하며 방송파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평양 중앙 방송국에서 매일 방송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 평양 방송국의 방송 주파수이다. 주파수는 큰 수'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키로 싸이클로 쓴다. 한킬로 싸이클이란 것은 1,000 싸이클을 말한다.

례를 들면 우리 평양 방송국에서 단파 2,850킬로 싸이클로 방송한다는 것은 우리 평양 방송국의 주파 수가 2,850,000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그러면 할아버지 장파란 무엇이예요?.

척척 할아버지—파장은 그 파장의 크기에따라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로 나눈다.

장파의 파장은 1,000m이상이고 중파는 100~1000m이고 단파는 10~100m이다. 그리고 초단파는 10m보다 적은 것이다.

인수—할아버지 그런 전파를 어떻게 보내고 받고합니까?.

척척 할아버지—전파를 보내는 장치를 가진 기계를 송신기라 부르고 전파를 받는 장치가 있는 기계를 수신기라한다. 너희들의 집에 있는 라디오도 그런 수신기란다.

일동—할아버지 참 많이 알았어요.

척척할아버지—많이 배운 지식을 쓸모있게 익혀 우리 나라의 훌륭한 라지오 기술자가 되여라.

정식—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딴걸 하나 묻겠어요. 저 초약으로 토끼의 병을 손쉽게 고치는 방법은 없나요?

척척할 아버지—있지 있어,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길래?

정식—설사증이예요.

척척 할아버지—음, 그건 삽지풀이 제일이다. 그풀의 뿌리를 캐서 그늘에 잘 말리워 가지고 가루를 내서 한번에 0.5~1 그람씩 사료에 버무려 먹이면 2~3일 후에는 설사증이 멎게된다.

순남—할아버지 우리 고향에는 삽지풀이라는게 없어요. 다른 초약은 없나요?

척척 할아버지—허허… 삽지풀이 없다, 그럼 광지풀로 치료하지, 광지풀이야 어데나 다 있는 풀이니까, 손쉽게 구할 수 있지, 그 광지풀의 줄기와 뿌리를 잘게 썰어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누렇게 될때까지 다려서 그 물을 매번 한 숟가락씩 먹이면 된다.

이밖에 솔 잎이나 솔 순을 잘게 썰어 그대로 하루에 30그람 정도 사료에 섞어 먹여도 좋다.

옥자—할아버지 곽시줌 에는 어떤 초약이 좋나요?

척척할아버지—그건 날콩물 24, 마늘물 1의 비률로 섞은 물에다 도토리 가루를 그 물량의 4분지 1정도 탄다. 이 물을 50그람 정도 취해 가지고 여기에 쇠 갈구리를 매번 불에 벌겋게 달구어 8회쯤 잠갔다낸다. 이 물을 새끼 토끼에게 하루 세번씩 먹이면 곽시줌을 쉽게 고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사탕물이나 엿물에다 길금 가루를 타서 사료에 버물려 먹이던가 메밀 가루를 사료량의 10분지 1 가량 섞어 먹여도 좋다.

일동—할아버지 많이 배웠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글 김 준 규　　　그림 장 기 복

사흘전 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지난 밤에도 소리치며 퍼붓더니 아침에야 멎었습니다.

여느때 보다 공부를 일찌기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황해남도 재령군 고산 중학교 6분단 조 봉렬 동무네 반동무들은 협동 조합벌 앞 동'둑을 바삐 오르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밀단을 나르고 있어, 이제 또 큰 비가 온다면서 아침에 아버지가 바삐 나가셨어》

《그럼 얘들아 큰물이 지겠구나, 동'둑 안에 베여 놓은 밀이 다 떠내려 가지 않겠니》

동무들은 걱정스레 이런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도 빨리 뛰여 가서 돕자》 봉렬이가 웨치듯 말했습니다.

잠시도 그냥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봉렬이네 반동무들은 앞에 가고 뒤에 오는 분단 동무들을 멈춰 세워 데리고 동'둑을 향해 뛰였습니다.

기름진 나무리'벌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산리 앞벌로는 재령강의 한 물줄기가 동'둑사이로 흘러 지납니다.

조합에서는 1954년부터 동'둑안 빈땅에 해마다 밀을 심었습니다.

올해에도 아저씨들은 풍작의 기쁨을 노래 하며 밀가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곡장으로 나르기 시작했는데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바쁜 때여서 동'둑안 밀은 다 거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강물은 밀밭 기슭을 핥으며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퍼부을 것이라니 이 일을 어떻게하겠어요.

아저씨들은 땀을 훔치며 단숨에 뛰여 온 소년단원들을 보자 막 환성을 올렸습니다.

《한 단이라도 잃어서는 안된다》

오직 이 한마음으로 분단은 한사람 처럼 밀단을 안고 줄달음쳤습니다.

하늘엔 그대로 검은 구름이 덮여 있어 해'빛을 감췄으나 분단 동무들의 온몸은 흠뻑 땀으로 젖었습니다.

《좀 쉬였다들 해라》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하면 분단 동무들은 《안돼요》 이 한마디로 딱 잘라 대답하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쥐어 뿌리며 뛰군 하였습니다.

강 오른편 쪽(재령쪽)의 밀단을 거의 다 나를 때였습니다.

온 하늘을 덮고 심술궂게 내려다 보던 먹장 구름은 끝내 굵은 비'방울을 퍼붓고야 말았습니다.

일은 어렵게 되였습니다.

강 건너 쪽엔 아직 날라 올 밀이 많습니다.

비는 그냥 내렸습니다.

《강건너 밀을 날라 오자》 분단 위원장 백 명규 동무가 이렇게 말하며 옷을 훌훌 벗기 시작했습니다.

키를 넘는 강물은 그냥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헤염쳐 나르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면 씽씽 스케트를 타며 온갖 재주를 다 부렸고, 봄이면 축산반 아저씨들과 함께 소 염소에게 풀을 뜯기며 토끼 풀도 뜯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날이면 언제나 여기 나와 자맥질 하고 물장구 치며 미역 감는 제일 사랑하는 고향의 강입니다. 그러기에 분단 동무들은 거의 다 헤염 칠 줄 알았습니다.

강을 건너 간 동무들은 저마다 오른쪽에 밀단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선 다음 물'결을 가르며 헤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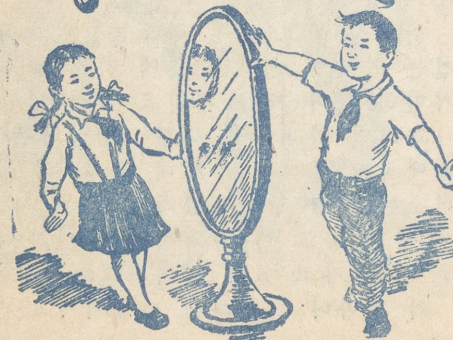
한 알이라도 젖힐세라 밀 이삭이 하늘로 향하게 세워 안고 온 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단 두 단 물결과 싸우며 안아 날랐습니다.

물'결은 밀단을 안은 아이들을 멀리 밀고 내려 갔습니다.

힘이 약하고 어린 편인 김 형오, 리 선익 동무들은 다른 동무들 보다 더 밀려 내려 가군 하였습니다.

지 경수, 공 승보, 손 영규 동무들은 먼저 건너 가서 마주 나와 받아 가군 하였습니다.

곽 청자, 문 영히, 박 봉비네 반동무들은 분단 동무들이 헤염쳐 건너어 온 밀단을 받아 이고 동'둑 넘어 까지 날랐습

《소년단원은 동무를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례절에 밝고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소년단원의 의무 중에서—

니다.

이렇게 한참동안 나르고 나니 힘은 진하고 날은 벌써 저물었습니다.

아직 밀단은 남아 있었습니다.

분단은 물러 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둑 넘어에까지 다 날라야했습니다.

이날로 다 나르지 않으면 남은 밀은 물에 떠 내려 갈 것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귀중한 땀이 스민 곡식을 한 알인들 어떻게 잃을 수 있겠어요.

분단 동무들은 일본놈들 때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름진 이곳 벌은 정 장로라는 지주놈이 혼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인민들은 정 지주놈의 땅을 겨우 얻어 부치면서 간신히 끼니를 이었습니다.

정 지주놈은 이곳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서는 나중엔 제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금 이'발까지 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세사람이 먹을 만한 량의 여러가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끼니를 굶어 배를 그려쥐고 일하는 마을 농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5~6월 보리'고개 때에 농민들이 쌀 꾸려 가면 정 지주놈은 육중한 몸을 뚱기적 거리며 나와 《거지 같은 것들이 일이나 잘해》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으면서 개를 축이군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간악한 놈입니까.

이렇게 살아온 이곳 인민들은 해방을 맞아 나무리'벌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로동당과 인민 정권의 품속에서 해마다 살림이 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복한 오늘의 조국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겼던가 이런 생각을 한 분단 동무들은 더욱 큰 힘을 내였습니다.

일은 계속되였습니다.

비는 그냥 기승을 부려 퍼부었으나 소년단원들의 붉은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건너가면 마주 헤염쳐 와서 받아 안아가고 다시 함께 헤염쳐 와서 나르군 하였습니다.

곽 청자, 문 영히, 박 봉비네 반동무들도 걷어 올린 치마를 쥐여 짜며 밀단을 날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저기 흩어진 밀 이삭을 남김 없이 주어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날 조합 아저씨들과 함께 2,493단의 밀을 위험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날 리당 위원장 아저씨를 비롯한 조합 아저씨들은 분단 동무들의 손'목들을 굳게 잡아 흔들어 주며 몇번이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요" 내동생은 1학년생이 됐어요

유치원 다니던 귀여운 내동생
엄마가 지어 준 고운 새옷 입고
나비 처럼 팔랑이는 리봉 달고요
아빠 손목 잡고서 학교 갔지요

오늘은 9월 1일 입학하는 날
상급반 오빠 언니 반갑게 맞아
가슴에 꽃다발 한아름 안고
1학년 첫 공부를 시작했어요

넓고 넓은 교실은 산뜻도 한데
새로 만난 동무들과 나란히 앉아
선생님 따라서 글을 읽고요
새공책에 또박 또박 이름도 썼죠

휴식 시간 되면 운동장에 나가
하나 둘 셋넷 보건체조 하고요
어깨동무 새동무 노래 부르며
모두다 손목 잡고 춤을 추었죠

첫날 공부 마치고 돌아온 내동생
어머님께 깍듯이 인사 드리니
어서 커서 나라의 일'군 되라고
원수님의 초상화도 빙긋웃어요

황해남도 삼천군 금천중학교
김 선 지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

기숙사를 새로 짓고 앞마당에 깔 돌을 나르는 황해남도 재령 초등 학원 김 현소, 정 순삼 두 동무를 보세요.

뒤에서 들고 걷던 현소는 앞에서 들고 걷는 녀동생 순삼이 옆에 가서 돌 하나를 가만히 들어 제가 가지고 앞서 걸어요.

그러면 가벼움을 느낀 순삼이는 또 현소에게서 살그머니 꺼내 들어가지요. 그래 현소는 지금 할 수 없다는 듯 먼저 빨리 가 내려 놓고 마주 와서 순삼이가 든 것을 받아 가고 있지 않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예요.

례절 밝은 윤 순자 동무

거울에 나타난 정주 초등 학원 단 윤 순자 동무는 누구나 다 칭찬하는 동무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을 항상 존경하며 새로 만날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여 례의를 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무들에게도 다정히 소년단 인사를 보내군 하여 동무들 모두가 순자는 례절 있고 친절한 동무라고 칭찬합니다.

나는 소년단원이 됐어요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나는 평북 삭주군 수풍 중학교 김 옥향입니다.

나는 지난 8.15 명절 날에 소년단원이 되였어요. 그 기쁨을 편집부에 말할려고해요.

나는 빨리 소년단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나는 단 위원들을 만나서 내 마음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소년단실에 가면 단 위원들은 입단 맹세와 소년단 규정도 설명해 주고 공부도 잘 하고 아동 혁명단원들처럼 용감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군 했어요.

소년단원이 꼭 돼야한다고 생각한 나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면서 내가 말아 기르는 피마주 해바라기에 거름도 많이 주고 매일 돌보군해서 제일 잘 키웠어요. 그리고 나는 학교에 올 때나 갈 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여러 번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소년단원들처럼 행동할가 하고 언제나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내가 소년단원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고 걸음마다 생각해 보며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의 규률도 잘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나는 중학생이 됐어요

여보세요, 평북 구장군 룡문 중학교 단 차 정균이 말합니다. 나는 인민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번에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니 어쩐지 새로운 결의를 굳게 다지게 돼요.

과목도 더 많이 늘었으니 공부도 몇 곱절 더 해야하고 인민반 어린 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소년단 생활을 잘하여 모든데서 모범이 돼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먼저 나는 반과 분단 일을 잘 하면서 공부에 열성을 내겠습니다.

배운 것을 크루쇼크에서 실험과 실습으로서 익히고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보면서 쓸모 있는 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년 동안에 선반 돌리는 기술을 꼭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학교를 다니고 나면 훌륭한 선반공이 되여 장차 기계 기사가 될 터예요.

이번에 있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도 나라에 더 많은 기술 일'군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기에 힘쓰겠어요.

우리 평양 휴암 중학교 단 제 15 분단에서는 《소년 신문》이나 잡지《소년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독보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동 혁명 단원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글, 또는 단과 분단 반의 사업 경험,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기사 등을 가지고 그를 본 받기 위한 분단 모임도 가집니다.

소년단 위원 및 반장 선거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가요?

단 및 분단 위원회와 반장 선거는 소년단 규정에 있는 대로 단 총회(단 대표자회) 분단 총회, 반 모임들에서 각각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단 및 분단 반의 지난 1년간 사업을 마감하는 일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조직되는 단과 분단, 반들에서는 선거에 대한 보고만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단 위원회 선거를 위한 단 총회는 소년단의 의식이 있은 뒤 단 위원장(위원 또는 열성자)이 지난 1년 간의 사업을 마감하는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지도원 선생님의 결론이 있은 다음 지난 기간 단 위원회 사업이 잘되고 못된데 대한 결정을 짓고 위원 선거에 들어갑니다.

선거는 먼저 자기 단체의 위원 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립후보자를 추천하고 등록한 다음 본인의 소개를 하고 다음에 토론을 거쳐 한 사람씩 손을 들어 결정합니다.

이때 본인의 소개는 이름, 나이, 학년, 학업 성적, 소년단 생활, 표창과 책벌 관계등을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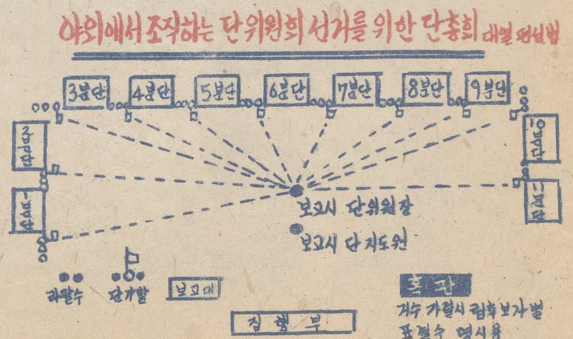
선거된 위원회는 첫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고 기수 벽보 주필을 임명하며 분단 번호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단 위원장은 곧 분단 위원장에게 분단 기'발을 수여합니다.

뒤'이어 사열식과 체육 대회, 유희, 오락, 써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단 위원회의 지난 1년간 사업을 보여주는 벽보 및 소년단원들의 창작품 전람회, 발표회들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분단 위원회 선거도 방법은 단 위원회 선거와 같은데 다만 분단 총회는 단 총회 때와는 달리 소년단 의식과 사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총회 때에는 사열식에서 소년단 구호를 주었지만 분단 총회 때에는 총회 마감에 분단 지도원이 구호를 줍니다. (단 총회에서도 사열식이 없다면 총회 마감에 구호를 주어야 한다)

반장 선거를 위한 반 모임은 반이 조직되자 첫 모임에서 소년단원들의 의사대로 누구를 반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정하고 손을 들어 결정할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단 위원회 선거를 위한 단 총회(대표자회)를 할 때의 대렬 정렬법은 그림과 같다. (실내에서 할 때는 장소에 따라 주석단과 좌석을 꾸며 놓고 하면 된다)(편집부)

야외에서 조직하는 단위원회 선거를 위한 단총회 대열 편성법

에서 출연 하세요

이제부터 지난 8. 15 해방 15 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은 프로들과 그밖의 몇가지 프로들을 가지고 우리 《소년단》의 《유쾌한 구락부》의 막을 열겠어요.

이제 출연할 단체는 평북 신의주시 남송중학교 단, 함남 신포 제 2 중학교 단, 황해남도 해주시 승마 중학교 단, 평북 청성군 청수 중학교 단, 황남도 청단군 청단 고급 중학교 단, 황남도 배천군 루천 중학교 단, 황남도 연안군 연성 중학교 단들입니다. 그럼 맨처음으로 신의주 남송 중학교 단 동무들의 가야금 병창이 있겠습니다. 부를 곡목은 《해바라기 풍년가》와 《똥구랑땡》입니다.

다음은 해주 승마 중학교단 동무들의 민족 기악 합주가 있겠습니다. 연주할 곡목은 《협동 마을 경사》 《령상 회상 중에서의 양청과 타령》입니다.

다음은 함남도 신포군 신포 중학교 단 동무들이 출연합니다.

이번엔 황남도 청단군 청단 고급 중학교단 동무들의 아동극 《앞날의 기술자》를 출연하겠습니다.

수상님을 모시고 공연한 기쁨

우리는 이번 8. 15 해방 15주년 경축 전국 예술 축전 무대에서 수상님을 모시고 공연하였습니다.

수상님은 우리가 연주하는 가야금 병창 《해바라기 풍년가》 《똥구랑땡》을 보시고 오래동안 박수를 보내주시고 칭찬해 주시였습니다.

공화국 창건 10주년 축전 때도 수상님은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민족 악기 1조를 선물로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면 누구나 다 민족 악기를 다루도록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수상님 앞에 가서 연주해 보리라는 결심으로 수상님이 준 가야금으로 연주 기술을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원하던 대로 수상님을 만나뵈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행복과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당과 김 일성 수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다음에는 더 훌륭한 프로를 가지고 수상님 앞에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님의 말씀대로 모든 동무들이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도록 하기에 힘쓰겠습니다.

평북 신의주시 남송
중학교 단 김 복수

다음은 황남 배천군 루천 중학교단 동무들의 《꼬마 농악무》의 출연입니다.

다음은 평북 청성군 청수 중학교단 동무들이 자기들의 즐거운 여름 방학 생활을 내용으로 한 조형 곡예 《즐거운 야영》을 출연하겠습니다.

어떼요. 멋 있지요. 그럼 이번엔 황남도 연안군 연성 중학교 단 동무들의 관현악을 듣기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형 곡예를 출현하게 되기 까지의 이야기를 청수 중학교 강 순자 동무에게서 듣기로 하자요.

예술 체조로부터 조형 곡예로 발전하기 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즐거운 여름 방학간 생활을 내용으로한 조형 곡예 《즐거운 야영》을 가지고 전국 예술 축전에 참가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장내가 터질듯한 박수를 보내 주었지요.

3년 전 우리가 예술 체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조형 곡예로까지 발전하여 중앙 무대에 올라 올 수 있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지요. 그때는 예술 체조를 하는 동무가 불과 8 명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60명으로 늘었어요. 조형 곡예를 통하여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밤 공부를 하다가도 밖에 나가 가슴, 다리, 팔 운동을 했습니다. 큰 거울을 놓고 동작하면서 감정을 잘 나타내는가를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 동작이 아름다워 지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됐지요.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연예 써클에도 힘써 다음번에는 더 훌륭한 연기를 보여드리 겠습니다.

평북 청성군 청수 중학교 단
강 순자

끝

개성시 만월 중학교 어린 동무들의 음악 스케치 《새 봄》을 출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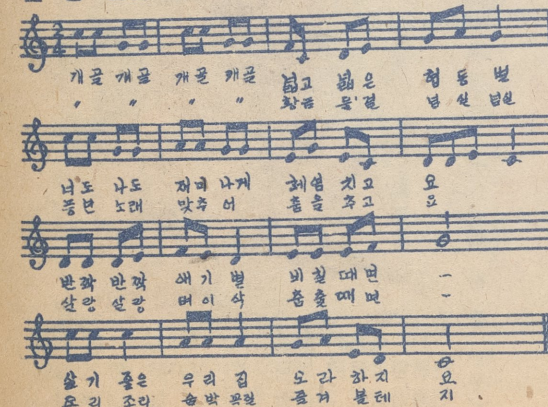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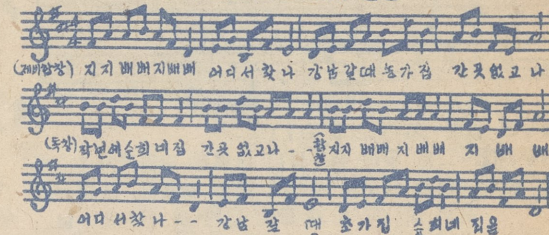
때—1960년 새봄
곳—어느 농촌 시내'가
등장하는 동무들 개구리 5 제비 5
무 대—(사진과 같음)

막이 열리면 개구리 물 속에서 뛰여 나온다.

개구리①—웬 집들이 저렇게 크고 예쁠가? 참 많구나!
개구리②—얘들아! 우리가 겨울에 잠자는 동안 저렇게 큰 집들이 일어 섰구나
일 동—정말!
개구리①—조합벌이 작년보다 굉장히 넓어졌지
개구리②—그래 꼬불꼬불한 논'길도 없어지고
개구리③—논에 물이 얼마나 많으니 인제 더 재미 있게 헤염치게 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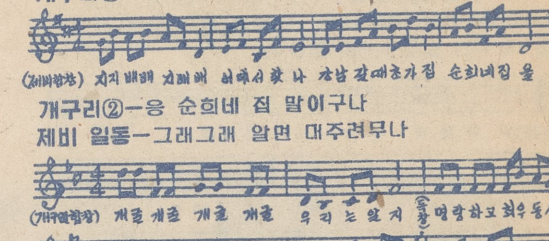
△ 자동차 소리—빵, 빵빵…
개구리 물 속으로 뛰여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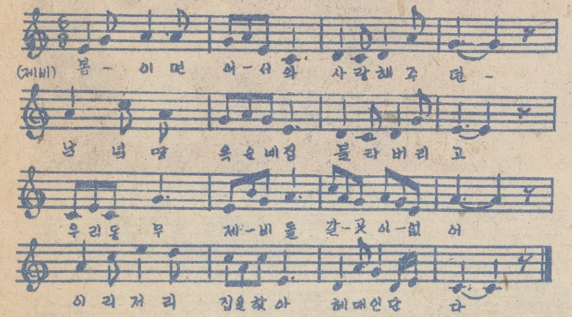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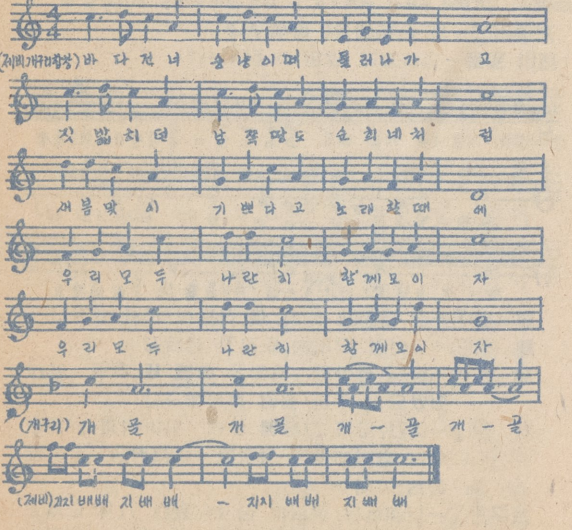
△ 잠시 후 량쪽에서 개구리들 모두 뛰여 나온다.

개구리②—야 혼났다야, 무슨 소리냐?
개구리①—응 자동차야
개구리③—참 많지!
개구리④—저것봐라 뜨락또르가 신이 나게 달리지
개구리⑤—저렇게 자동차에다 거름을 잔뜩잔뜩 실어 내가니 올해는 더 많이 풍년 지겠지
개구리①—그런데 순희네는 어디로 이사했을가?
개구리②—글쎄 보지못한 새집들 뿐이야
개구리③—응 순희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 꽃 노란 꽃이 곱게 핀 저기 저 집이 틀림 없을거야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 오면 순희네 집을 못 찾겠지
개구리①—그럼 우리 순희네 집을 찾아 볼가?
일 동—그래 그래

△ 개구리 퇴장하고 제비 등장

제 비①—얘들아 우리가 잘못 왔나 봐
제 비②—안야 안야 저기 방석나무 우물 옆 그 자리가 틀림 없어
제 비③—하지만 그 때는 초가집들이였지
제 비①—그럼 우리 빨리 찾아 보자
일 동—그래 그래
제 비④—난 힘이 들어서 더는 못 가겠는데
제 비①—조금 있으면 해도 저물텐데 어떻게 하니?
제 비④—그렇게 많이 찾아 봐도 순희네 집은 없는 걸 뭐

△ 개구리 오른 쪽에서 등장

개구리①—제비야 제비야 뭘 그리 찾니?

(제비합창) 지지 배배 지배배 어데서 찾나 강남 갈때 초가집 순희네집 을

개구리②—응 순희네 집 말이구나
제비 일동—그래그래 알면 대주려무나

제 비①—야 저렇게 예쁜 새 집으로 이사 했구나
제 비③—그런걸 우리는 모르고 찾았지
제 비①—아이 좋아라 저렇게 예쁜 새 집에 살게 되였으니 우린 정말 행복하구나
제 비④—여긴 모두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흥부네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만 사는 가봐
개구리①—너희들은 작년에 한 번 왔다 가서 모를거야 여기는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받들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일하기 때문이란다.
제 비①—그런데 그런데
개구리①—제비야 제비야 왜 그러니?
울지 말고 말해 봐!
제 비①—저기저기 남녘땅의 우리 동무들은…
개구리①—그래 그래 너희들은 오면서 보았겠지

개구리 일동—저런 안됐구나!
개구리②—그럼 우리 동무들은 어떻게 되었을가?
제 비①—너희 동무들 소리도 듣지 못했어,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풀만 많은 데 거기서 살 수 있니?
제 비②—승냥이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을 불태우고 배고파 우는 사람들을 죄다 모조리 쫓아 냈단다.
개구리③—그러니 우리가 사는 여기를 퍽 부러워 하겠지
제 비①—그래서 지금 저 남녘 바다 건너 온 승냥이놈들은 이 땅에
개구리 일동—못있게 될거야
개구리④—야! 얼마나 좋아 그 날이 오면 모두가 순희네처럼 잘살게 되겠지
제 비①—그리고 너희 동무들도 우리 동무들도 다 같이 행복하겠구
개구리①—인제 머지 않아 그 날이 꼭 올거야
제비 개구리 일동—아이 좋아라!

(끝)

"우화"

금빛 알을 나은 거위

이 소 프

어떤 날 한 가난한 농부가 그의 움'집 앞에 앉아서 장차 겨울이 닥쳐오면 어디서 식량을 마련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식량을 살 돈도 없고 이제는 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낯선 사람이 아름다운 흰 거위 한 마리를 안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거위를 잘 돌봐 주시요.》 그 낯선 사람은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내 거위도 당신을 잘 도와 주리다.》 그는 거위를 내려 놓더니 오던 때와 마찬가지로 눈 깜빡하는 동안에 어디론지 살아져 버렸습니다. 그래 농부는 그가 변장한 선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흰 새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물도 주고 또 자기가 저녁'거리로 남겨 두었던 마지막의 보리 한 줌도 주었습니다. 거위가 저녁을 다 먹었을 때에는 바깥 따뜻한 건초'더미 속에다 잠'자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도 자리에 들어가 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위의 자랑스러운 울음 소리에 잠을 깨였습니다. 가서 거위'장을 들여다 보았을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바로 이쁜 금'빛 알이 하나 있었겠지요.

그 농부는 얼마나 놀랐으며 기뻤을가요.

그는 알을 집어 해'빛에 대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총명한 거위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이나 하는듯이 고개를 빼여 꺼욱거리고.

농부는 곧 근처 장으로 가서 알을 팔아 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 거위의 몫으로 연맥과 보리를 사고 자기의 몫으로는 흰 빵과 포도주와 꿀을 샀습니다. 집으로 얼른 돌아와 불을 켜 놓고 거위와 나란히 앉아서 호사로운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였습니다. 농부는 얼마 안가서 새 의자를 살 수 있게 되였으며 식탁과 따뜻한 옷도 사게 되였습니다. 그는 큰 집을 살 수 있게 되였으며 가장자리에 나무와 꽃을 심은 채전을 가꿀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는 거위의 훌륭한 집을 지어 주었으며 거위는 만족스레 잔디우 장미나무 밑을 산보하면서 하늘에 아침해가 솟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장안에다 빛나는 알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늘어가는 재산이 농부의 머리를 돌게 하였습니다. 그는 인색하게 욕심꾸러기로 되고 더욱더욱 알을 탐나게 되였습니다. 그는 이 거위 배속에는 얼마나 많은 알이 들어 있을가를 생각하게 되고 일주일에 겨우 일곱개씩 아니라 한꺼번에 알을 무더기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 불친절한 잔인한 늙은이는 어떤 날 그 금'빛알을 낳아 주던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흰 배를 갈라 본즉 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놀랜 눈으로 불쌍한 죽은 거위를 들여다 보며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가진 짓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쓸데 없는 노릇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전의 그 낯선 사람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난 당신에게 거위를 잘 돌보라고 했고 그러면 내 거위도 당신을 잘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성난 얼굴로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거위를 집어들고 가버렸습니다. 그가 선녀이니까 물론 그는 거위를 다시 살려 내겠지요. 그러나 이 잔인한 욕심꾸러기 농부는 갑자기 부자가 되였듯이 갑자기 가난뱅이로 되여버렸습니다. 다시는 거위장에 가서 아름다운 금'빛알을 얻어 오지 못하게 되였기 때문에.

책을 즐기는 김 주 동무

(평양 동흥 중학교 19분단 김 주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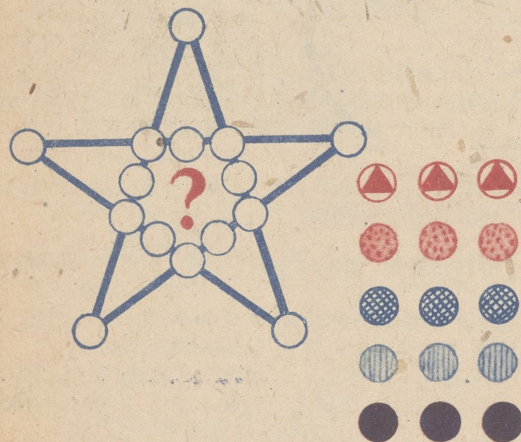
1)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 이 책은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읽기로 민청 중앙 위원회에서 지정한 책이다. 열심히 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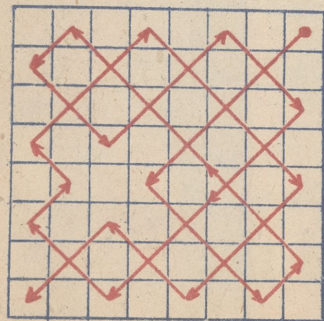
2) 아동혁명단원 용남이의 생각은 참말 멋진 생각이다.

3) 야, 밉살스런 일본놈 통쾌하게 넘어지누나.

4) 내가 그들처럼 동지를 사랑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에 충실했던가?

어떻게 놓을가요?

여기에 다섯가지의 무늬를 가진 원들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그다섯개의 원들을 5각형의 매 변들에 어떻게 놓으면 같은 무늬를가진원들이 곱 놓이지 않게 놓을 수 있을가?

7호 현상 문제 해답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중 한가지 방법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알아 마친 사람

황남도	삼천군	도봉	중학교	장 진결
황남도	송화군	포구	중학교	라 석초
함북도	회령군	남문	중학교	라 향자
함북도	청진시	민주	중학교	박 인순
함남도	고원군	고원	중학교	김 원익
함남도	인흥군	청동	중학교	차 경남
함남도	흥남시	매봉	중학교	유 환석
함남도	홍상군	동봉	중학교	리 홍권
자강도	고풍군	월명	중학교	김 판봉
평양시	승호구역	승호	중학교	김 명철
평양시		룡흥	중학교	김 문석
평양시	사동구역	사동	고중	김 태일
량강도	삼수군	삼수	중학교	원 웅성
평북도	대관군	대관	인민 학교	리 필숙
평북도	운전군	령미	중학교	김 수명
평남도	안주군	안주	초등 학원	최 영주
평남도	안주군	신안주	중학교	리 숙자

《소년단》 7호 《어디가 틀렸는가?》의 해답

그림을 보면 달이 해를 향하여서 휘여지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달은 해에 의하여서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불룩나온 쪽이 해를 향하여야 한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9 호 (총 131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442 값 25 전 150,000부 발행

9.10월 위생 월간 사업에 모두 나서자!

소년단원 동무들! 9. 10월은 위생 월간입니다. 이번 위생 월간에는 도시, 농촌 어느 곳 어느 부문할 것 없이 위생 문화 사업에서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집들과 공공 건물들을 꾸리며 청소 미화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점, 려관, 리발관, 목욕탕, 세탁장, 정거장, 공원과 유원지를 깨끗이 꾸리며 또 새로운 위생 시설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토끼우리, 돼지우리, 소 외양간, 닭의장들도 깨끗이 꾸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파리와 모기 등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곤충들을 잡아 없애는 일입니다. 또한 개체 위생도 잘 지키고 공중 위생 도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모두다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9. 10월 위생 문화 사업에 나섭시다.

평양에서는 《8.15 해방 15주년 경축 전국 교육 전람회》가 열리였습니다

전람회에는 공화국 각지 학교들에서 보내 온 공작, 미술, 문학 작품들이 전시되였습니다.

전람회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조국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배우며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훌륭한 재간과 솜씨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중 소년단원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몇가지 소개 합니다.

조각 《쏘련 군대 아저씨》 (2등) 평양 류성 중학교 장 시웅

←

밀집 공작 《쌍두 천리마》 (1등) 평남 양곡 중학교 인민반 4학년 김 정만

《고 성기》 평양 의암 중학교 률리 크루쇼크

조각 《어미 토끼로 되였다》 강원도 원산시 평화 중학교 김 하원

솜 수예 《평화의 봄》 평북 선천군 계생 중학교 김 춘자

→

그림 《옥류교 건설장》 (수채화 1등) 평양 남산 고급 중학교 초급반 3학년 정 유성

←

그림 《우리 토끼》 평양 동흥 중학교 조 만화